

# 이젠 내 차례

Now It's My Turn

요한복음 21:1-14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2년 10월 7일 설교

<sup>1</sup>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sup>2</sup>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sup>3</sup>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 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sup>4</sup>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sup>5</sup>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sup>6</sup>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sup>7</sup>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걸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sup>8</sup>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오십 간 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sup>9</sup>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sup>10</sup>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sup>11</sup>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일백 쉰 세 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sup>12</sup>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sup>13</sup>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sup>14</sup>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 주님이 하신 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 갈릴리로 가 제자들을 자주 만나셨는데 그 한 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몇 제자가 함께 있다가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갈릴리 호수로 갔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주로 밤에 고기를 잡는 모양입니다. 베드로가 가겠다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 갔는데 우리 교회도 비슷하지요? 장로님이 간다 하시면 집사님들도 우르르 따라갑니다.

그런데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는데 허탕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먼동이 터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잠이나 잘 걸. 싶었겠지요. 그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고기 좀 있니?” 원문은 “얘들아, 혹 먹을 것 좀 없니?” 그런 말입니다. 있을 걸로 은근히 기대하는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아니요.” 원문도 한 낱말입니다. “우!” 영어로 하면 “노우.” 통명스런 대답입니다. 밤새 허탕을 쳤는데 지금 친절 따지게 됐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다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 말이지요? 그런데 아직은 기억이 안 난 모양입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그물을 던졌습니다. 다 큰 제자들을 “아이들아” 하고 부를 정도니까 고기잡이에 통달한 도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지요. 어쨌든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고기가 그 자리에 다 모여 있어서 밤새 허탕을 친 모양인데 주님이 그걸 보시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 주셔서 그걸 다 잡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요한이 알아차렸습니다. “주님이시구나!” 왜 요한이 먼저 알았습니까? 경험이 있거든요. 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눅 5:1-11).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께서 배를 좀 쓰자 하시더니 베드로의 배에 앉아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런 다음 베드로한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보아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그 때도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겁낼 것 없다” 하시고는 앞으로는 물고기가 아닌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이 먼저 깨달은 걸 보니까 그 때 베드로보다 요한이 감동을 더 받았던 모양입니다.

## 함께 준비한 아침상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물에서 가까워 물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 만큼 성질이 급하지는 않아서 배를 탄 채 물고기가 가득 잡힌 그물을 끌고 물으로 나왔습니다. 나와 보니 주님이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생선을 주님이 굽고 계시는 거겠지요. 그 곁에는 떡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오너라” 하십니다. “방금 너희가 잡은 생선을 몇 마리 갖고 와라”하는 말씀이지요. 지금 생선을 굽고 계시면서 왜 또 가져 오라 하십니까? 준비한 생선이 모자라 그런 건 아니시겠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함석헌 전집에 나오는 건데 (5권 105쪽) “오늘은 오늘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나간 체험도 소중하지요. 하지만 과거를 먹고 사는 건 좋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살아 있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뜻은 “너희도 할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인칭 복수가 암시만 되고 있습니다만 주님은 “방금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갖고 오너라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이 준비하신 것과 제자들이 잡은 것을 함께 모아 아침상을 준비하십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곧 하늘로 가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는 제자들이 알아서 잡아야 됩니다. 아침상도 제자들이 알아서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잡은 것도 갖고 오라 하신 것입니다.

오래 전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랬습니다. 그 때도 물고기를 많이 잡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였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앞으로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얼마 뒤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러 왔습니다. 주님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놀면 안 되지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밤새 허탕을 쳤는데 주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을 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못 잡을 줄 아셨으니까요. 그러면서 또 제자들에게 생선을 잡도록 도와시고 그렇게 잡은 물고기를 갖고 오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제자들 차례가 되어야 하니까요.

## 주님의 도우심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와서 먹어라” 하신 거지요. 그런데 주식은 생선이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아침상 주식은 떡입니다. 주님이 준비해 오신 떡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먹이시려고 떡에다 생선까지 다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 생선 몇 마리로 동참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애들아, 혹 먹을 것 좀 없니?” 하고 물으셨는데 여기서 “먹을 것”은 생선이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그보다는 그냥 먹을 것, 특히 빵과 함께 먹을 어떤 음식을 가리킵니다. 영어로 하면 사이드 디쉬, 우리 식으로 반찬, 부식이라는 뜻입니다. 빵을 먹는데 빵만 먹는 게 아니라 거기 뭘 얹어 먹는데 주로 생선을 얹어 먹다 보니 그 먹을 것이 생선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혹 먹을 것 좀 없니?” 하고 물으신 게 바로 빵과 함께 먹을 이 음식입니다.

우리 식으로 해서 “너희들 혹 김치 좀 없니?” 하고 물으신다면 거기 담긴 뜻이 있겠지요? 밥은 있다는 말입니다. 밥이 있으니 김치를 찾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이 준비하신 식사를 보니 밥도 있고 김치도 있습니다. 김치 좀 없니, 하시기에 안 갖고 오신 줄 알았는데 갖고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너희가 막 담근 김치도 좀 갖고 오너라” 하십니다. 왜요? 이제는 제자들 차례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갖고 와라 하셨지만 사실 그거 누가 잡은 겁니까? 그물이야 제자들이 던졌지만 제자들은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잡힐 거라는 건 주님이 알려 주셨습니다. 그거 주님이 잡으신 겁니다. 제자들은 밤을 새워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지 않았습니까? 오른쪽에만 던졌겠습니까? 동서남북 다 던졌겠지요. 그런데도 못 잡았습니다. 뒤늦게 제자들이 잡긴 했지만 주님이 잡게 해 주신 겁니다. 제자들이 잘 한 건 꼭 하나, 주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점입니다.

## 떡과 물고기

떡과 물고기. 이 두 가지는 우리 주님이 배고픈 백성들에게 주신 두 가지 음식입니다. 이 가운데 떡이 우선입니다.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이 떡에 많이 비기셨습니다. 떡을 먹어야 사는데 우리 주님이 이 떡, 곧 하늘에서 내려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 떡을 우리도 믿음으로 먹어 삽니다.

주님이 이 떡은 직접 갖고 오셨습니다.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시면서 생선도 갖고 오셨습니다. 떡이 주님의 몸을 가리킨다면 생선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비길 수 있습니다. 오래 전 베드로에게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많은 사람을 그 생명으로 인도하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부가 그물을 던져 생선을 잡아들이듯 베드로도 또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시고 다른 제자들도 부르시고 아픈 사람 소외된 사람 불우한 이웃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도 또 우리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친히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 떡을 먹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제 하늘로 가십니다. 이미 가셨습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많이 가르치셨지만 이제 부활하신 다음 하늘로 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떡은 주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생선도 주님이 갖고 오셨지만 이제 너희가 잡은 걸 갖고 오너라 하십니다. 이제는 제자들 차례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또 우리에게도 맡기셨으니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인계받아야 됩니다.

오늘 성찬식은 먹는 시간, 잔치 시간입니다. 와서 밥 먹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뭘 먹습니까? 주님이 준비하신 음식, 곧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우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믿음으로 먹고 마셔 영생을 얻습니다. 물고기 같은 우리도 참여합니다. 먹는지 먹히는지 헛갈리지만 어쨌든 풍성한 잔치가 됩니다.

## 이젠 우리 차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 해 놓으셨으니 와서 먹고 즐기면 되지요. 그게 잔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도 잔치를 함께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이 다 해 놓으신 걸 먹고 마시지만 해서는 안 되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상에 우리가 방금 잡은 생선도 하나 얹어 그것도 함께 먹으며 잔치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주님의 희생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함께 얹어야 할 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이웃이 생선이라면 전도의 열매를 함께 즐긴다는 뜻도 되겠지요. 하지만 사람 하나 끌고 온다고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주님이 하신 것처럼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주님처럼 나를 희생해야 하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나도 내 삶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이 잔칫상에 그런 생선 한 마리를 다 올려놓으셨습니까? 주님은 “너희가 방금 잡은 생선을 갖고 오너라” 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게 모자라서도 아니고 싱싱한 걸 원하셔서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 주역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뜻 또한 우리가 주역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우리 대신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해 주시는 분, 우리가 직접 책임을 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찬은 감사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한 것도 없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십니다. 그와 함께 성찬은 책임의 자리입니다. 사랑을 입었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입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나오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상에 한 마리 올려드려야 됩니다. 물건 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이 당신을 바치셨으니 우리도 자신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다.

## 오직 은혜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제자들도 생선을 잡긴 했지만 그거 알고 보면 주님이 다 하신 겁니다. 주님이 다 하시고서는 마치 제자들이 한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다 해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 오늘 갖고 온 것 없다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 게 많은 것 같아도 주님 앞에서 보면 하나도 없고, 한 게 전혀 없는 것 같아도 주님 은혜로 따져보면 사실 없지는 않은 그게 믿음의 신비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찬에서 더 큰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참여하는 이 성찬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수고하여 마련한 아름다운 잔칫상이 되고 이 상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권수경 목사)